

중구소식

2005. 4월 vol.48



월미관광특구 캐릭터 '월디'

구정목표

세계로 웅비하는 미래 지향적인 국제관광도시 건설

발행인 | 중구청장 김홍섭 편집 | 문화공보실
주소 | (우)400-701 인천광역시 중구 중구청길 100(관동1가 9)
전화 | 760-7122 팩스 | 760-7129 월간 | 비매품(통권 48호)



구마크



꽃 철쭉



새 갈매기



나무 해송

벚꽃 향기 그윽한 봄의 숨결, 자유공원과 차이나타운에 찾아들다

하늘을 뒤덮은 벚꽃의 향연.
여기저기서 들려오는 사람들의 왁자한 말소리.
아름답고 화려한 감정선을 드러내는 전통 춤들.

지난 16~17일 차이나타운과 자유공원 광장에서
우리들은 중국인들과 한 데 어우러져
화사한 봄 날만큼이나 화려한 축제를 빚어냈다.

수 만명의 사람들은 벚꽃 향기에 취하고,
봄의 열기에 상기돼 세계적 도시로 발돋움하는 중구를 축복했다.

‘한중문화관 개관 기념 차이나 타운 벚꽃축제’는
손을 맞잡고 한 곳을 바라보는 중구와 중국의 우정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소중한 자리로 비상하고 있었다.



구정시책

- 주민기대에 부응하는 자치행정 실현
- 봉사와 나눔의 복지사회 실현
- 환경 친화적인 도시기반조성
- 활력이 넘치는 지역경제 육성
- 역사와 문화가 공존하는 품격있는 관광도시 조성

주요기사 안

- 봄의열기 차이나타운을 달구다 2, 3
- 개항기 근대건축물 지역 새 단장 ‘박차’ . . . 4
- 동북아 중심공향으로 ‘날아오르다’ 5
- 동인천 옛상권 회복 ‘잔걸음’ 6
- 중구사랑 - 나도모르게 사랑에 빠진 ‘영종도’ . . 7
- 테마여행 - 월미도 8
- 포토구정 9
- 대체의학 - 엄지발가락 지압효과 10
- 의회소식 11
- 이련일 저련일 14



한 중 문화 관 개 관 기 념

차 이 나 타 운 벚 꽃 축 제

봄의 열기

16~17일 자유공원 차이나타운 일대서 펼쳐진 벚꽃 축제 盛了
한중문화관 개관식도 열려, 중국인 100여 명 참석 '축하' 인사

차이나타운을 달구다



한중문화관 개관 기념 차이나타운 벚꽃 축제가 지난 16~17일 자유 공원 일대와 한중문화관 주변에서 펼쳐졌다.

이 기간 수만 명의 중구민들과 인천 시민들, 그리고 경기도 서울 등 다른 지역 사람들이 참여해 봄날을 화사하게 빛내는 벚꽃과 함께 행복한 한 때를 보냈다.

자유공원과 차이나타운 일대는 봄 기운과 함께 벚꽃을 즐기려는 사람들로 인산인해를 이루고 중국인들의 모습도 쉽게 만날 수 있었다.

중국 전통의상인 '치파오'를 차려 입고 뛰노는 아이들과 중국 전통 악기에 맞춰 승천하듯 춤을 추는 용들이 차이나타운의 색조를 강하게 뽐내었다.

이날 축제에는 차이나타운에 사는 화교들 외에 약 100여 명의 중국인이 참석했다. 산둥성 라오청시 동창푸구 등 중구청과 우호교류 관계를 맺고 있는 중국 8개 시·구·현 공무원들이다. 이들이 중구를 찾은 것은 차이나타운에 세워진 '한중 문화관 개관식'에 참석하기 위해서다.

한중문화관 개관식은 오후 3시에 개최됐다. 기념식엔 리빈 중국대사와 주

잉제 주한 중국문화원장, 안상수 인천시장, 김홍섭 중구청장, 지용택 새얼문화재단 이사장이 자리를 함께 했다. 참석자들은 중국 문화원이 한국과 중국, 인천과 중국의 교류에 큰 역할을 해주길 희망했다.

개관식을 축하하기 위한 공연도 많은 이들의 눈길을 끌었다. 문화원 4층에서 열린 축하공연에선 인천시립무용단과 웨이하이시 예술단이 각각 전통 춤을 선보이며 아름다운 교류를 나누었다.

문화관 앞마당 한 쪽에서는 왕희지 석상 제막식이 펼쳐졌다. 중국 동진시대의 서예가인 왕희지 석상은 높이 3m, 받침대 높이 1.5m의 화강암으로 만들어졌다. 이 석상은 산둥성 린이시 난산구 인민정부가 중구청의 요청으로 중국에서 직접 만들어 기증한 것이다.

이날 행사는 약 3시간 동안 진행됐으며 참석자들은 취타대 행렬과 함께 차이나타운을 한바퀴 돈 뒤 만찬장으로 향했다.

한중 문화관 기념식이 있던 16일과 축제가 이어진 17일엔 중국전통춤인 용춤과 함께 대학동아리팀의 힙합, 스포츠댄스가 자유공원을 찾은 사람들의 흥을 돋구었다. 인디밴드 공연에선 비대중적인면서도 독특한 장르의 음악이 매니아들의 눈과 귀를 즐겁게 해줬다.

사물놀이, 민요, 국악 등 한국전통공연과 발리댄스 등 동서양의 예술이 한



데 어우러지기도 했다. 중국 치파오와 우리나라 한복이 기량을 겨루는 패션쇼 역시 볼 만한 축제 풍경이었다.

자유공원 한 켠, 배드민턴장에선 ‘우리동네 최고 맛자랑 장터’가 열리기도 했다. 장터에는 10개 동이 마련한 특색있는 음식을 즐기려는 사람들로 발디딜 틈이 없었다.

밤이면 환하게 불을 밝히는 흥등과 청사초롱은 축제 분위기를 더욱 달구었다. 원활한 행사 진행을 위해 남부교육청 옆, 구 한국회관, 제물포고교 체육관 입구, 흥예문 앞(자유공원 방향), 아조사 옆, 한중문화관 주변도로는 ‘임시 차없는 거리’로 지정돼 많은 사람들이 쾌적한 축제를 만끽했다.

행사를 준비한 중구청 관계자는 “중국인을 비롯해 점차 참가자가 늘고 있어 모두에게 힘을 주고 있다”며 “차이 나탄은 벚꽃축제가 세계적인 축제로 거듭나고 있다”고 말했다.



| 한 · 중문화관 개관 |

대륙 ‘중국의 모든 것’ 한 곳에



지난 16일 아름다운 자태를 드러낸 한중문화관은 중구가 지난해 초, 공사를 시작, 올해 봄 마침내 벚꽃같은 꽃망울을 터뜨렸다.

중구 항동 1가 1의2 구 월미자동차공업사 부지에 세워진 한중문화관 1층 관광정보관, 2층 사회문화역사관, 3층 우호도시홍보관, 4층 문화홍보관 등으로 꾸며졌다.

관광정보관에 기획전시관, 관광정보센터, 정보검색실, 사무실, 휴게실이 들어섰으며 사회문화역사관에 중국의 복식과 음식문화, 관광, 유물 등이 전시된다. 이와 함께 첨단 산업 영상, 한중교역, 매직비전도 설치됐다. 3층 우호도시홍보관에 8개의 홍보실과 홀로프로그래밍이 설치됐으며 4층 문화홍보관은 공연장으로 사용된다. 공연장에선 16일 인천시립무용단과 중국 전통무용단이 첫 무대를 수놓기도 했다.

약 878평의 대지에 90여억을 들여 만들어지는 문화관은 지난해 초 착공해 1년여 만에 결실을 보게 됐다. 지난 달 한국관광공사 표준화센터 감수를 마친 한중문화관엔 현재 중국 9대 우호도시가 기증한 물품으로 가득하다.

치박시 박산구에선 365점의 도시자기를, 위해시 환치구에선 102점의 전통공예품을 각각 증정했다. 또 영구시에선 선사시대유물 등 99점의 예술품을, 임기시 난산구에선 왕희지석상과 손자병법죽간 등 100여점의 선물을 전해왔다. 조만간 청도시 시남구, 요성시 동창부구, 항주시 하성구, 산둥성 미산현 등에서도 각종 특산품을 기증할 계획이다.

한중문화관은 지난해 1월 착공해, 5월 1개층 증축 설계변경을 시행했으며 7월에 철근 콘크리트 골조공사를 마쳤다. 10월에는 건축물 내·외부 조직공사를 완료했으며 11월에 지붕(공포, 기와)공사와 도장(단청) 공사를 끝냈다. 올 들어 지난 1월31일 내부 인테리어와 홀 천연대리석을 붙였다.

(취재 : 박재신, 명경식, 이재경)

중국 복식, 음식, 관광, 유물 등 갖춰져
16일 개관, 중국 문화 메카로 자리할 듯



개항기 근대건축물 지역 새 단장 '박차'

중구, 주민이 참여하는 가로환경정비 추진

개항기 근대건축물 밀집지역의 관광 벨트화를 위해 중구민과 중구가 손을 잡는다.

중구는 차이나타운에서부터 신포시장까지 이어지는 개항기 근대건축물 밀집지역을 '주민 참여형 역사·문화의 거리'로 조성한다고 최근 밝혔다.

구는 자유공원을 축으로 하는 차이나타운 권 신포권 동인천권역을 다양한 볼거리, 먹거리, 살거리가 갖춰진 '위킹 관광벨트화'로 만들기로 했다. 이는 이 지역을 국·내외 관광객이 즐겨 찾는 관광명소로 만들어 구도심 상권 회복과 함께

지역경제에 불을 지피기 위해서이다. 이를 위해선 구 자체적으로 추진하기보다 주민이 참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 주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기로 했다.

구는 이에 따라 오는 9월까지 차이나타운 신포권에 이르는 보행공간을 확보하는 공사를 추진 중이다.

전기와 각종 통신선로, 상수도, 도시가스 등의 지중화를 추진하는 등 도로 기반시설을 재정비하고 있으며 가로환경도 새롭게 꾸미는 중이다. 역사·문화 거리에 걸맞는 도로모습을 갖추기 위해 가로등도 새로 설치한다.

관동교회 신한은행 670m의 차도는 아스콘이나 깔라투수콘을 사용해 고풍스럽게 꾸미며 일정 간격으로 특색있는 화단을 조성한다는 구상이다.

60개소에 설치되는 가로등은 고풍스런 모양으로 꾸며지며, 조도를 개선해 모양 뿐 아니라 실용적으로도 손색이 없도록 할 예정이다.



이다.

중구청 앞 도로변은 쉼터와 높이 2m, 넓이 3m분수대가 들어서 구청을 찾는 민원인들에게 시원함과 편안함을 선사할 것으로 전망된다.

교차로 지점 3개소와 중구청 앞에는 역사·문화의 거리를 알릴 수 있는 안내판과 안내 사인을 설치한다. 안내판엔 근대 건축물의 위치와 건축물의 역사를 담기며 중구 관광안내와 역사·문화의 거리 홍보판도 설치된다.

구는 지난 2001년 10월 개항기 근대건축물 보

전 및 주변지역정비방안 연구용역을, 2002년 8월엔 교통영향평가를 각각 완료했다.

2003년 들어선 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와 결정 고시를 거쳐 주민설명회 3회, 주민위원회 구성 및 개최 2회, 월미관광특구 지중화 사업 추진방침을 수립하는 등 발빠른 행보를 보여왔다.

구 관계자는 "동인천 권역 기반시설 정비 2단계 공사가 끝나면 거리가 쾌적하고 아름다워지는 것은 물론 과거의 화려한 상권을 회복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취재 : 이재경)



중 구 의 옛 풍 물

성루카병원

자유공원으로 올라가는 언덕길 어귀에 서 있는 성공회가 바로 성루카병원이었다.

1890년에 인천에 상륙한 고요한(高耀翰)신부(Bishop John Corfe)가 송학동 3가 1,2,3번지 넓은 터에 예배당을 건립하면서 함께 온 미국인 남득시(南得時)의사(Dr. Eli Bam Landis)를 위해 이 병원을 마련했던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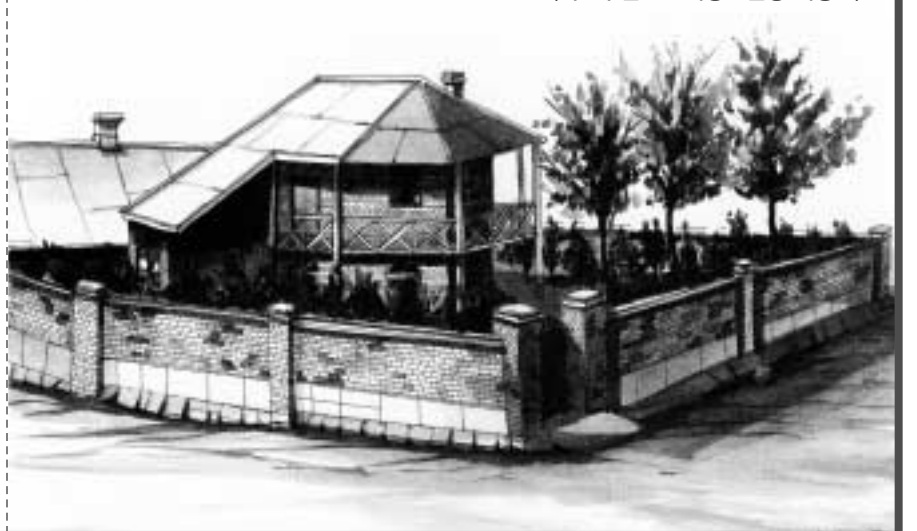
새로운 의술과 따뜻한 정성을 겸한 랜디스의사의 혜택을 받은 많은 사람들이 그를 약대인(藥大人)이라고 칭송하기에 이르렀다. 그러면서 성루카병원은 약대인병원으로 그 언덕일대는 약대인산으로 불리웠는데 약대인이 자연스레 '약대이'로 변한 것이다.

그 후 8년간이나 많은 환자를 돌보아 명성이 자자했는데 과로와 고독의 탓이었는지 이 곳에서 세상을 떠났다. 몇 년후에 영국인 의사가 왔으나 일인이 러일전쟁 때 야전병원으로 사용했을 뿐 얼마 안 되어 약대이병원은 문을 닫았다.

6·25동란으로 언덕아래에 있던 예배당이 파괴된 후 1956년에 병원 자리에

지금의 교회를 신축했다. 교회에 들어서면 왼쪽에 조그만 기념비를 보게 되는데 인천에 처음으로 신의학을 선물하고 이곳에 청춘을 묻은 랜디스의사에 절로 고개를 숙이게된다.

(자료수집 : 문화공보실장 하승보)



인천공항 개항 4주년

동북아 중심공항으로 '날아오르다'

국제 교류 거점으로 성장, 여객·화물 크게 증가



동북아 허브공항을 목표로 개항한 인천국제공항이 지난 달 개항 네 돌을 맞았다.

지난 92년 영종, 용유지역 1천700만평을 매립해 10년만의 대역사 끝에 건설된 인천공항은

개항 전부터 세계의 이목을 받으며 지난 2001년 3월28일 힘찬 나래를 펼쳤다.

인천공항은 우리나라의 관문이자 국제교류의 핵심거점은 물론 동북아 물류중심국가의 핵심시설이다.

인천공항은 개항 4년만에 괄목할만한 성장을 했으며 명실상부한 세계의 관문이라 하여도 지나침이 아니다.

인천공항 4년의 성과

인천공항은 2004년 항공기 운항은 14만6천회, 여객은 2천3백62만명, 화물은 2백13만2천t을 처리했다. 이는 2000년 김포공항과 비교하면 항공기는 49%, 여객은 32% 화물은 32%가 각각 증가했다. 취항항공사와 취항도시도 김포공항 때는 33개, 95곳에 불과했으나 인천공항은 55곳, 123곳으로 항공사는 57%, 도시는 29개가 늘었다. 이는 김포공항의 매년 10% 성장률에 비하면 크게 증가한 것이라 할 수 없지만 인천공항의 최첨단 시스템에 의한 운영과 세관과 출입국관리소의 각종 절차 간소화로 인한 여행객들의 인천공항 만족도가 국제항공운송협회(IATA) 평가에서 세계 46위에 랭크되고 지난해에는 세계 2위를 차지하는 등 양적인 것을 비롯해 질적인 수준의 향상에서 알 수 있다. 또 국제공항협회(ACI)에서는 3년 연속 'Best Airport Award'를 수상하고 미국의 여행전문지인 글로벌트래블러에서 2004년 세계 최고의 공항으로 선정되기도 했다. 인천공항은 또 시정거리 100m 이상의 거리만 확보되면 항공기 이착륙이 가능한 CAT-IIIb의 공항운영등급을 아시아공항 중 처음 획득했다. 이 밖에 인천공항은 동북아 허브공항을 목표로 45개 추진 목표를 설정, 개선하고 있으며 CIQ 등 공항내 정부기관 등이 참여하는 '인천공항 서비스개선위원회'를 구성해 출입국과 친절, 보안분야 등 서비스 개선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장애인 노약자를 위한 한마음서비스라운지 운영과 공항 이용객들을 위해 환승투어, 전통문화체험관, IT전시관, 한류테마매장, 작은 박물관 등 다양한 편의시설을 갖추고 있다.

국제 교류의 거점이 되다

인천공항은 지난해 우리나라를 출입하는 내외국인의 82%가 이용했다. 2004년 인천공항으로 입국한 외국인인 3백98만3천여명이며 내국인은 6백58만4천여명이 이용했다. 우리나라 전체 출입국장 1천2백93만여명 중 1천56만8천여명이 인천공항을 이용해 명실공히 국가관문으로서의 위치를 확고히 하고 있다. 인천공항을 이용한 수출입물량은 우리나라 전체의 0.2%에 불과하지만 금액으로는 수출입총액의 31.5%에 달하는 1천500억달러를 처리했다. 2004년 수출액은 828억달러, 수입액은 678억달러로 처음으로 부산항 1천4백45억달러를 넘어 우리나라 교역항 중 최고를 기록, 대외교역의 대동맥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다. 인천공항은 이와 함께 화물터미널 동측에 자유무역지대 30만평을 조성, 내년부터 본격 운영에 들어간다. 이곳에는 11곳이 입주업체가 확정됐다. 외국기업은 일본 물류업체인 KWE코리아, 독일의 쉘커, 등 단독입주와 컨소시엄을 통해 10개 업체, 국내 업체는 삼성로지텍, 범한종합물류 등 54개 업체의 입주가 확정돼 향후 국내의 물류수요 창출에 큰 기여를 할 것으로 보인다. 또 국제비즈니스를 위한 국제업무지역(IBC) 하얏트 호텔에 외국인 전용 카지노가 운영되며 국제업무지역 뒤편에는 10만평의 골프장이 추가 건설된다. 이와 함께 영국 아멕(AMEC)사가 왕산지역 120만평에 20억달러를 투자, 골프장과 리조트 등을 조성할 예정이며 삼목과 신불도의 'SKY 72 골프장' 중 신불도 18홀 골프장이 오는 7월 개장하면 10월 나머지 골프장도 문을 연다.

미래의 인천공항과 과제

인천공항은 명실상부한 동북아 중심공항으로 자리매김하기 위해 지속적인 확장을 하고 있다. 오는 2008년까지 4조7천여억원을 들여 활주로 1본(4000m)과 5만평 규모의 탑승동, 33만여평의 항공기 계류장 등을 건설하는 2단계 사업을 벌이고 있다. 2단계가 완공되면 오는 2010년 인천공항은 여객은 연간 4천400만명, 화물 450만t, 항공기는 41만회가 운영할 수 있으며 취항항공사도 70여개에 290여개 노선을 연결, 거미줄 같은 항공망을 구축하게 된다. 이러한 성과에도 불구하고 인천공항은 아직 해결해야 할 과제가 많다. 외부적으로는 중국 상해 푸둥공항 등 중국공항의 고성장과 순수 민간공항인 일본 나고야 주부국제공항과 치열한 경쟁을 벌여야 하며 최근에 서울시에서 김포공항에 단거리 국제노선을 유치하기 위해 발벗고 나서 있어 자칫 인천공항의 경쟁력 저하가 우려된다. 또 IATA의 고객만족도 평가에서 세계 2위로 선정됐지만 시설적인 우수성은 인정하고 보안검색과 출입국 절차, 항공사의 탑승소속 등 공항 서비스는 중위권에 있어 전체적인 서비스 개선이 필요하다. (취재 : 박재신)



동인천 옛상권 회복 '잔걸음'

2단계 동인천권역 기반시설 마무리, 청소년문화거리 조성 박차

동인천권역 기반시설 2단계 사업이 마무리되면서 청소년 문화의 거리 조성 작업이 빨라지고 있다.

중구는 신포상권과 더불어 인천의 옛 중심상권이자 인천 경제의 구심적 역할을 해왔던 동인천권을 되살리는 데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는 중이다.

구는 특히, 동인천권을 신포동과 차이나타운을 연계하기 위해 이 일대 기반 시설을 재정비, 개선함으로써 침체한 지역 상권을 회복하려는 계획을 진행 중이다.

최근 학생교육문화회관 개관과 더불어 청소년 문화의 거리로 조성하는 것이 이 사업의 핵심이라 할 수 있다.

구는 우선 추진방침을 상권의 기능제고를 위해 보·차도를 정비하고 주변 환경 개선에 역점을 두기로 했다. 또 상권 활성화를 위해 특화거리 조성을 유도하며 시설물을 적정 설치하고 사업의 난이도 등 효율적 사업추진을 위해 용역설계를 추진하기로 했다.

추진방향은 기반시설을 재정비해 상권활성화를 마련하는 것으로 잡았다. 즉, 전기 통신 지중화 도로 포장 가로등 및 홍보시설물을 설치한다는 것.

아울러 지역주민의 여론을 수렴해 보·차도 정비와 일방통행로를 재검토하고 차이나타운, 신포상권 등 주변 상권과 연계한 고객 유인 벨트화를 추진하기로 했다.

청소년 문화의 거리 조성을 위해선 무엇보다 청소년들이 많이 찾아야 한다고 판단, 청소년 문화의 명소화도 병행 추진하는 중이다.

이에 따라 지난해 설계용역과 입찰, 지중화 공사를 마쳤으며 기반시설공사도 마무리한 단계이다.

기반시설공사는 내동, 전동, 인현동 일원을 대상으로 했으며 길이 1천 77m, 폭 5~10m로 1단계 지중화 사업, 2단계 도로기반시설 정비로 이뤄졌다.

구는 지금의 모습을 갖추기 전까지 많은 공을 들여 왔다.

지난 2003년 7월 동인천권 2단계 기반시설 예산을 확보한 뒤 월미관광특구 사업추진 방침을 마련했다. 이어 한전 인천지사 지중화 관련 현장확인하고 협의를 벌였으며 한전 등 지중화 유관기관과 함께 협의회의를 가졌다.

이어 12월에는 동인천권 기반시설 정비 주민설명회를 갖고 주민들의 호응을 끌어냈다.

지난 2004년에는 건설과가 주관인 토 도로관리심의대상조사를 제출해 도로굴착복구비를 면제받는 등 예산을 절감했으며 2월에 2차 주민설명회를 열어 배전함 설치 위치 협조 요청을 했다. 또 보·차도 정비에 따른 주민의견을 수렴하기도 했다.



동인천권역기반시설 등 정비공사(2단계)

이어 서울 광진구 노유1동, 용산구 이태원동 등 이미 지중화된 도시와 깨끗한 가로환경을 조성한 곳을 찾아 주민들로 하여금 지중화와 기반시설정비 사업에 적극 참여토록 독려하기도 했다.

이어 6월까지 지중화공사를 마무리하는 등 설 새 없는 발걸음으로 사업을 마무리하는 중이다.

중구 관계자는 “모든 기반시설 공사는 사실상 마무리한 단계”라며 “이제 본격적인 청소년 문화의 거리 조성으로 동인천 상권의 옛명성을 찾을 시기가 왔다”고 말했다.

(취재 : 김동규)

갯골수로 복개재개 청원의결

지난 3월17일 인천광역시 제135회 시의회에서 중구 신흥동 3가 7-317번지상 신흥현대아파트 야파트 옆 구거 복개공사 재개청원이 의결되었다.

본 갯골수로는 염전과 갯벌을 매립하면서 생활

하수를 처리하기 위하여 조성한 하수배수로로 1,490m구간 중 50m를 복개하고 나머지 잔여구간을 복개하다가 95년 12월 일부 구간에 파일을 박아 놓은 채 공사를 중지함에 따라 그 동안 주민들

은 오수가 썩으면서 나는 악취와 파리, 모기 등 해충으로 인하여 고통을 겪다가 복개를 해야하는 사유를 내용으로 담아 복개를 재개하여 달라는 청원서를 제출하였다. 이에 3월 15일 시의회 의원들이 현장을 방문하여 본 내용을 확인하고 3월 16일 상임위에서 복개공사 추진을 촉구하며 본 회의에 부의하기로 의결하고 3월 17일 본 회의에서 복개공사 재개청원이 의결되었다. 이에 대해 일부 단체에서는 복개를 하게되면 정화되지 않은 더러운 물이 인천 앞바다로 흘러 들어가게 되어 바다를 오염시키지 않겠느냐는 우려도 있었으나 이미 인천시에서는 생활하수를 별도 채집하여 학익종말처리장으로 보내는 공사를 발주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은 기우에 불과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주민들은 복개한 후 그 이에 공원과 쉼터를 조성하여 학생들의 통학로와 시민휴식공간으로 개발할 것을 바라고 있다.

(취재 : 명경식)





나도 모르게 사랑에 빠진 ‘영종도’



김순철 (영종동 33통 통장)

문득, 지난 5년여 시간을 되돌아 본다. 영종도에 등지를 튼 지 벌써 5년이 됐다니... 낯설기만 했던 영종도, 그러나 이제는 가장 사랑하게 된 영종도. 나도 모르는 사이, 난 영종도와 사랑에 빠져 있었다.

유명한 시인이 아니라도, 이름난 화가가 아니어도, 또 멋진 음악을 작곡한 음악가가 아니라도 영종도를 보면 예술가가 될 것이다. 끝없이 펼쳐진 갯벌에 펼쳐진 붉은 서해 낙조, 그 위를 수놓는 갈매기와 창공을 가르는 항공기. 이런 아름다운 파노라마를 접하면 누구나 시인이 되고 화가가 되며, 작곡가가 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지난 2000년 성남시 분당에서 남편 직장을 따라 이사왔을 땐 정말 한숨만 나왔다. 아이들의 교육 문제에서부터 기반시설이 변변치 못한 영종도의 현실을 접하며 도무지 정이 가지 않았던 것이다. 아이들이 아플 때에도 변변한 약국이나 병원을 찾을 수 없었고 물가 또한 높기만 했다. 외지로 나가려면 비싼 고속도로 통행료를 물어야 했고 주민등록등본을 발급받으려면 버스로 왕복 3시간은 소비해야 가능했다. 그 때문에 나는 아이들 아빠에게 화풀이를 하기 일쑤였고 신경질적으로 변하고 있었다. 그러나 영종도에 대한 이런 나의 불만이 사랑으로 변하게 된 계기가 있었으니, 그것은 바로 동네에서 책임있는 자리를 맡으면서부터이다.

평소 밝은 성격 때문에 자의 반 타의 반으로 맡은 영종동 33통 통장직은 나를 전혀 다른 사람으로 만들어 주었다. 2001년 어느 가을날 동장님께서 봉사활동을 한번 해보지 않겠냐는 제안을 받았고 망설이던 나는 한번 해볼까 하는 마음으로 통장직을 수락했다.

이어 며칠 뒤 다른 통장들과 함께 백운산을 가게 됐다. 자연보호운동을 벌이기 위해서였다. 그날 백운산 정상에 오르는 나는 지금까지의 생각을 후회하고 말았다. 그 이유는 단순했다. 눈 앞에 시원하게 펼쳐진 인천공항의 웅장함과 영종도의 푸른 벌판이 갑자기 인천의 젖줄로 보이면서 감동에 빠져 든 것이다. 수려한 서해의 절경을 바라보며 나는 고향 어머니 품 같은 넉넉함과 황홀함을 맛 보았고 그 때야야 비로소 ‘내가 영종도에 터전을 잡기를 참 잘했구나’ 깨우친 것이다.

나는 내가 왜 이렇듯 아름다운 곳을 미워했는가, 왜 죄없는 남편을 괴롭혔는가 하는 자책감과 함께 좀 더 일찍 백운산에 올라올 걸 그랬구나 하는 후회마저 들었다.

이제 신도시에는 많은 학교가 세워졌다. 아이들의 교육문제는 해결됐고 버스로 왕복 3시간씩이나 걸리던 동사무소도 코 앞에 생겼다. 텅텅 비었던 고층 빌딩에는 식당과 편의시설이 가득 들어섰으며 상권도 파다파다 뛰는 서해의 생선처럼 활발해지고 있다.

부동산 가격도 상당히 안정됐으며 영종 본토 사람들과도 많이 친해졌다. 영종 주민들은 손수 농사지는 영종도 특산물들을 제공하고 있으며 신도시 주민들은 주민 자치센터, 산불예방 계도운동, 자연보호운동, 행락객 질서 계도 활동 등을 통해 더불어 사는 삶을 실천하고 있다.

향후 우리나라 최대 관문이 될 영종도의 커다란 발전을 기대하며 살기 좋고 풍요로운 최첨단 신도시로의 밝은 미래를 기원해 본다.

아울러 신도시 주민들이 잘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신 중구청과 영종도 내 동사무소 관계자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전한다.

(취재 : 명경식)



동네 환경 지키는 ‘실버의 힘’

60세 이상 노인 80명, 우리동네 지킴이 활동 펼쳐
안정적 노인 일자리 창출, 동네 구석구석 청결하게



중구는 ‘2005년 우리동네 환경지킴이’를 오는 11월 30일까지 운영한다.

우리동네 환경지킴이는 고령사회에 대비해 노인의 사회참여를 통한 고용창출을 위한 제도이다. 노인인력을 활용해 뒷골목 환경을 정비하는 제도인 것.

구는 이에 따라 중구에 사는 60세 이상 희망 노인 가운데 노동이 가능한 건강한 노인 80명을 선발했다. 노인

들은 쓰레기 무단투기를 적발하고 계도하며, 쓰레기 잔재를 직접 청소하면서 내 집, 점포앞 쓸기 분위기를 조성할 예정이다.



또 전단지, 명함지, 벽보 등 불법광고물을 제거하고 투기행위를 감시하며 기타 주민 생활환경 저해요인을 수시로 감시하게 된다. 영종 용유 지역은 지역실정에 맞는 활동내용을 선정할 방침이다.

우리동네 환경지킴이는 현재 1회성 취업 알선이나 캠페인성 자원봉사 방식을 지양하고 저소득층 노인일자 창출사업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또 현재 다원화된 뒷골목 환경 관리체계를 점진적으로 노인인력으로 단일화 함으로써 저렴한 인건비로 안정적인 인력을 확보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이와 함께 단일한 체계로 청소

업무의 효율성을 기대할 수 있다는 점도 매력이다.

우리동네 환경지킴이는 지난 2003년 1개동 6명을 시범 운영했으며 지난해 전

면 시행, 67명을 고용했고, 올해는 정착단계로 접어들어 모두 80명을 고용하게 됐다. 내년부터 더욱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중구 관계자는 “노인인력을 활용해 뒷골목의 총체적 환경감시 역할을 부여, 사전에 은밀한 쓰레기 무단투기 행위를 근절하고 고령화 시대 노인문제 해결의 최우선 사업으로 추진 중”이라고 말했다. (자료제공 : 보건복지과)



음~~~

이 맛, 정말 명품일세

명품관



레스토랑 분위기,
이력 붙은 '등심' 등 최상 등급 고기로만 요리
명품관 갈비 등은 가족이 즐기기에 그만,
조반상 · 전복죽 · 야채죽도

'명품', 그 이름 자체로도 여성들이 좋아하는 단어이다. 그럼 우리 중구에도 '맛'에도 명품이 있을까. 물론 있다. 공항신도시에 소재한 '명품관' (중구 운서동 2796의 2)이 바로 '명품의 맛'을 만들어내는 곳이다. 쾌적하고 널찍한 현대식 인테리어에 '객분양행락도' 등 민화가 수놓아진 벽면. 명품관은 들어서는 순간부터 귀족이 된 듯한 기분을 느낀다. 인테리어가 세련되면서도 따뜻하기 때문이다. 실내는 마치 유럽풍의 고급 레스토랑 분위기에 한국 전통의 맛을 가미한 것처럼 보인다.

이 집의 명품 요리는 '한우이력제 생등심'이다. 이 고기는 소를 기른 농부에서부터 도축, 제품으로 나오기까지 사람의 이력이 붙어서 나오는 신뢰 만점의 요리다. 영양, 신선도, 맛에 있어 최상의 등급이라 할 수 있다. 한우이력제 생등심은 물이 자동으로 공급돼 온도를 조절해주는 자동 불판에 구워서 먹는데 두부처럼 연하면서 향긋한 냄새가 말 그대로 입에서 살살 녹는다. 완전히 익히기보다 빨간 빛깔이 드문드문 남아 있을 때 양념소금이나 푸추, 양파 소스를 찍어먹는 맛

이 여느 고기와는 사뭇 다르다.

가족들이 함께 즐길 수 있는 요리는 '명품관 갈비' (양념갈비)이다. 가격이 저렴한 반면, 맛은 끝내준다. 이와 함께 '왕갈비' '소갈비' 등 갈비의 모든 것을 맛볼 수 있다.

소고기, 해물, 상추 샐러드 역시 웬만한 식당과는 다른 맛을 우려낸다. 상추 샐러드의 경우 싱싱한 푸른 상추에 밥을 싸서 나오는데 이 위에 살짝 데친 고기를 얹어 땅콩 소스에 찍어먹는 맛이 아무리 먹어도 질리지 않는다. 고기를 먹은 뒤 시키는 냉면은 동치미 국물과 육수를 섞어 우려내 시원한 맛이 그만이다.

온돌, 테이블, 웨이팅 홀 등 288석을 갖추고 있어 삼삼오오 식사는 물론, 회식, 돌잔치, 대형 연회를 할 수 있으며, 일류급 요리사만 16명이 일하고 있다.

또 오전 6시 부터는 미역국이 나오는 '명품관 조반상'을 받을 수 있으며, 전복 · 야채 죽도 만날 수 있다. 분위기에 맞는 화이트 · 레드 와인도 맛볼 수 있다.

명품관 ☎(032)746-9233

(취재 : 박재신)



월미도에 봄이 찾아왔어요



횃집, 카페, 놀이동산, 유람선에 봄의 생기 '펄펄' 워터스크린 설치 공사 한창, 해변에서 즐기는 영화 기대돼

봄 바람이 살랑살랑 귤볼을 스치는 계절. 월미도에서 부는 바닷바람에 봄내음이 물씬 묻어난다. 따뜻한 봄볕을 즐기며 손 잡고 거니는 연인들. 저만치 앞서 뛰어가는 아이를 부르는 젊은 부부의 얼굴이 봄별만큼이나 화사하다. 지금 월미도는 '워터스크린' 설치 공사가 한창이다. 머잖아 월미도를 찾는 사람들은 바다에서 영화를 감상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프랑스 칸 해변에서 즐기는 '칸 영화제' 처럼, 월미도 역시 먹거리, 놀거리와 함께 분위기 있는 명소로 변모하고 있다.

월미도에 들어서면 처음 인사하는 곳은 횃집이다. 바다를 몇m 사이에 두고 길게 늘어서 있는 횃집들은 서해의 낙조와 함께 광어, 우럭 등 싱싱한 회를 선물한다.

바닷바람을 쐬며 월미도 문화의 거리를 따라 걸어본다. 횃집이 끝나면서 카페들의 모습이 눈에 띈다. 은은한 커피향과 귀에 익은 감미로운 음악..., 카페에서 연인들은 추억을 만들고 중년부부들은 추억을 회상한다. 이 곳에선 모두 영화 속의 주인공이 돼 상상의 날개를 펼친다.

월미도 곳곳엔 멋진 예술작품이 놓여 있다. 항구 도시 인천을 상징하는 닻, 아이들에게 기쁨을 어른들에게 동심의 세계를 선사하는 월디 등 아름다운 조형물을 감상할 수 있다.

밤에는 팔색미인의 얼굴, 열주를 만날 수 있다. 월미도 밤을 휘황찬란하게 수놓는 열주는 시간에 따라 빛깔을 달리 하며 빛의 향연을 펼친다.

야외무대는 누구라도 공연을 할 수 있는 열린 공간이다. 이 곳에선 중구 축제 때 연극, 음악연주회, 댄스경연대회 등 다채로운 공연이 무대를 수놓곤 한다. 평상시에는 누구라도 먼저 '썸' 하면 사용할 수 있다.

추억을 싣고 떠나는 영종도행 배와 움직이는 천국 유람선도 월미도 명물이다. 영종

도행 선상에선 공중부양을 하는 갈매기들의 수상쇼를 즐길 수 있다. 공연료는 새우깡 한 봉지면 충분하다. 공중에 뿌려주는 새우깡을 받아먹으며 갈매기들은 사람들과 친구가 된다.

유람선 코스모스호는 식당과 무대를 갖추고 있으며, 작약도, 용유도, 팔미도 등 인천 앞바다 풍광을 한눈에 볼 수 있도록 해준다.

바이킹 등 놀이기구 수십 개가 있는 놀이동산은 청소년들이 좋아하는 장소이다. 놀이기구를 타면 아이건 어른이건 모두 어린 애처럼 좋아할 수밖에 없다.

봄이 찾아온 월미도, 이번 주는 다 함께 월미도의 봄을 만끽하는 게 어떨까...

(취재 : 명경식)





어촌계장간담회

김홍섭 중구청장은 7일 한식당 토촌에서 광명어촌계장 등이 참석한 간담회에서 어업인들도 긍지와 자부심을 가지고 황폐한 어장을 살리며 우리바다를 정화하는데 최선을 다하여 달라고 당부했다.



한중문화관 개관식 테이프절단

16일 김홍섭중구청장은 안상수 인천시장 및 내빈들이 참석한 가운데 한중문화관 개관식 테이프절단식을 가졌다.



공직자의식개혁교육

7일 구회의실에서는 21세기 무한 경쟁시대를 맞이하여 공직사회에 일고 있는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함은 물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경영마인드 함양과 구 역점사업의 성공적인 수행에 따른 공감대 형성을 위한 공직자의식개혁교육이 열렸다.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정례회의

14일 김홍섭 중구청장은 중화루에서 열린 제11차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정례회의에 참석, 전영태협의회장을 비롯한 회원들이 평화통일 조성에 앞장설 것을 당부하였다.



한중카페리선사대표 간담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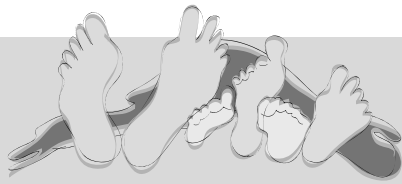
지난달 25일 중식당 태화원귀빈실에서는 김홍섭중구청장과 관계공무원 등은 9개선사 대표와의 간담회를 열어 대중국 여객운영 실태 및 건의사항을 청취하였다.



우호교류 의향서 체결 기념촬영

17일 구청회의실에서는 한중문화관 개관식에 참석한 치박시박산구 관계자와 우호교류 의향서를 체결, 기념촬영을 하였다.

** 대체의학 **



엄지발가락 지압효과



오행상으로 목(木)은 오장에 있어서는 간장에 해당되고, 육부에 있어서는 쓸개에 해당 된다. 그리고 발가락에 있어서는 엄지발가락에 해당한다. 얼굴에서는 눈이 목(木)에 해당된다. 그래서 한방에는 눈을 간의 구멍이라고 했다. 간염이 걸리면 황달이 오는 등 먼저 눈에 징후가 드러나는 것이다. 그리고 간이 안 좋으면 시력도 나빠진다.

그런데 엄지발가락은 우리 인체에서 머리에 해당한다. 목(木)의 이상에 의해서 생기는 병들로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다. 뇌출혈로 인해서 오는 중풍, 두통, 뇌성마비, 편두통, 정신장애, 간질환, 시력장애 등의 경우다.

목(木)의 이상에 의해서 생기는 병들은 엄지발가락을 지압해 주면 많은 도움이 된다.

엄지발가락을 자극함으로써 관련 장부인 간이 회복되고, 더 나아가서 시신경을 막고 있는 것을 뚫어 줌으로써 시력장애도 해소된다. 아울러 머리와 관련된 각종 질환의 개선에도 도움을 준다.

엄지발가락 지압으로 간장기능 좋아져

발가락 지압의 치료원리는 단순하다. 마치 수도 파이프가 열면 전기를 쏴아서 확 뚫어 주는 것처럼 인체의 막힌 부분을 기로써 뚫어 주는 것이다. 시신경을 막고 있던 것을 뚫어 주었기 때문에 시력이 회복된 것이다.

그런데 가장 큰 힘은 사랑의 힘이다. 치료를 위해 특별히 기를 수련해야 하는 것이 아니고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면 이 세상에서 가장 큰 기적을 일으킬 수 있는 것이다. 처음 배울 때 가르치는대로 순수한 마음으로 사랑을 가지고 하다보니 효과가 나타나는 것이다.

발가락을 지압할 때의 요령은 그 병이 목(木)에 해당할 때는 간장, 쓸개, 눈의 막혀있는 부분을 정신을 통해 들어가서 뚫어 준다는 생각을 가지고 한다. 이렇게 상상을 하면서 발가락을 만져줄 때 아무 생각없이 무턱대고 만지는 것보다 훨씬 큰 효과가 나타나는 것이다.

또한 항상 다섯 발가락 전체를 골고루 지압해 주어야 한다. 비록 목(木)에 장애가 와도 전체 발가락을 골고루 지압함으로써 상호작용을 통해 균형이 잡히도록 해야한다. 특히 발가락 지압은 부부가 정성을 가지고 한다면 평생의 건강법으로 더할 나위없이 좋을 것이다.

■자료제공 : 심원기(자연치유요법 전문가)

이 달의 수산물

우럭



단백질이 풍부하며 탄력이 좋고 담백한 맛이 일품인 우럭은 우리나라 사람들이 광어와 함께 횡감으로 가장 즐겨먹는 생선이다.



차이나타운 벚꽃축제행사에 바로 이사람이



지난 16일부터 이틀동안 아침 10시부터 자정 가까이 자유공원광장 메인 무대에서는 마이크를 잡고 수많은 사람들의 시선을 잡으며 성인가요콘서트가 진행되도록 동분서주한 이가 있으니 이가 바로 이효상(이벤트기획 아트뱅크 대표/씨이다. 그는 경인방송에서 한창 뜨던 프로그램인 성인가요20과 열전가수왕의 진행자로 약 10여년 전부터 연예계 및 이벤트회사에 몸담아 왔으며 이번 차이나타운벚꽃축제 및 한중문화관 개관식의 이벤트행사를 기획 및 진행하며 중구민은 물론 한중문화관 개관식에 참석한 중국인과 수도권에서 우리구를 찾아온 수많은 관광객들에게 질서있는 행사를 관람하며 동참하여준 데 대하여 보람을 느낀다며 중구민들과 공무원들의 노고에 감사드린다고 덧붙였다.

이씨는 계획한 약 20분간의 불꽃놀이 벚꽃놀이 전야제 중 가장 아름답고 장엄했다는 시민들의 평가와 격려에 고마움을 느꼈으며 콘서트를 끝까지 관람하며 내년에도 다시 오고 싶다는 말을 들을때 가장 보람을 느낀다고 하였고 콘서트에 참석한 현미, 진미령, 문희옥, 박진도 등 유명가수들도 중구민의 뜨거운 환영에 감명을 받았다고 전하며 명예중구민이 되고 싶다는 뜻을 강하게 전했다.

(취재 : 박재신)

이달의 중국어회화표현

書店離這兒很近 (shū diàn lí zhèr hěn jì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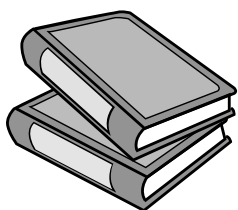
서점은 여기서 매우 가깝습니다.

A: 請(qǐng)問(wèn), 書(shū) 店(diàn) 在(zài) 哪(nǎ) 兒(ér)?
죄송하지만, 서점이 여기에 있습니까?

B: 在(zài) 東(dōng) 仁(rén) 川(chuān) 。
동인천에 있습니다.

A: 離(lí) 這(zhè) 兒(ér) 遠(yuǎn) 嗎(ma)?
여기서 먼니까?

B: 離(lí) 這(zhè) 兒(ér) 很(hěn) 近(jìn) 。
여기서 매우 가깝습니다.



〈More Tips〉

※(주의) 거리가 먼지 가까운지 확인 할때에는 從(cóng)을 쓰지않고 離(lí)를 써야 합니다.

이달의 일본어회화표현

花見(はなみ) 꽃구경



山田(やまだ): 李(り)さん 今週(こんしゅう)の日曜日(にちようび) 時間(じかん) ありますか?

李(り): ええ? 日曜日(にちようび)의 午後(ごご)なら ありますけど

예. 일요일 오후라면 시간이 있습니다만...

山田(やまだ): でしたら いっしょに 花見 行(い)きませんか?
그럼...같이 꽃구경 가지 않겠습니까?

李(리): 花見に 行くなら 自由公園(じゆうこうえん)が 近(ちか)くて いいと 思(おも)いますか?
꽃구경에 가느라면 자유공원이 가깝고 좋다고 생각합니다만...

山田(やまだ): あ そうですか? では 4時(よじ)に 自由公園の 入口(いりぐち)の 前(まえ)で 会(あ)いましょう?
아...그렇습니까? 그럼 4시에 자유공원 입구 앞에서 만나죠.

李(리): はい, 分(わ)かりました? では さようなら?
예, 알겠습니다. 그럼...안녕히 가세요.

山田(やまだ): では 楽(たの)しみに 待(ま)ってます? さようなら?
그럼 기대하고있겠습니다. 안녕히가세요.

〈More Tips〉 • 동사기본형 + なら ~라면 • 명사 + なら ~면

■자료제공 : 현대 외국어학원 내용문의 | 761-3536



제134회 및 135회 임시회 개최

제134회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임시회가 2005년 3월 24일부터 30일까지 7일간의 일정으로 개최되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상반기 주요사업보고 및 현장확인의 건으로 집행부의 주요사업에 대한 현장 확인을 통하여 사업추진 상황을 보고 받고 추진상의 문제점 및 그에 따른 대안을 제시, 예산집행에 소홀함이 없도록 하고 기타 조례 안 등을 『원안가결』처리하였다.

또한, 제135회 임시회를 4월 12일 1일간의 일정으로 개최하여 인천광역시 중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 일부 개정조례안 외 2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가결』처리하였다.

노인대학 제22기 입학식 축하



최무웅 부의장을 비롯한 의원들은 지난 3월 22일(화) 오후 2시 노인복지회관(3층)에서 개최한 노인대학 제22기 입학식에 참석하여 축하를 통해 “자기 능력개발을 위해 틈틈이 시간을 내어 노력하시는 어르신들의 열정과 의지에 아낌없는 찬사를 보내드린다”고 말했다. 또 오늘 성대한 입학식을 거행하기까지 고생하신 김홍범 대한노인회 중구지회장님과 이민재 대학장을 비롯한 관계자들을 격려하였다.

산돌 노인대학 입학식 축하



중구의회 김기성의장은 3월 23일 오전 11시 신흥동 소재 산돌교회(목사:김영준) 노인대학 개강식 및 입학식에 참석하여 축하를 통해 “오늘 입학식을 계기로 어르신들께서 더욱 더 생활에 자신감과 적극적인 자세를 가져주시기 바라며 개인의 적성과 능력개발에 꾸준한 노력을 기울일 수 있는 기회가 되시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제60회 식목일 나무심기 행사 참석



줄 것”을 당부했다.

김기성의장을 비롯한 의원들은 지난 2일(화) 오전 10시 운서동 배후지원단지(2호 완충녹지)에서 개최한 제60회 식목일 나무심기행사에 참석하여 “나무를 심는 일은 우리의 희망을 심는 일이라는 마음으로 오늘 한 그루 나무를 정성을 다해 심어

중부경찰서 자율방범 연합대장 이·취임식 참석



김기성의장은 지난 3월 29일(화) 오후 7시 동인천소재 뉴 코아 웨딩홀부페에서 개최한 인천중부경찰서 자율방범연합대장 이·취임식에 참석, 축하를 통해 “평소에도 늘 우리 주민의 치안을 위해 힘쓰고 계시지만 앞으로도 지역의 참된 봉사자

한중문화관 개관 기념식 참석



로써 금지와 사명감을 가지고 범죄예방 등 각종 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하여 범죄 없고 인정이 넘치는 살기 좋은 고장을 만들어 나가는데 다 함께 노력하고 협력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다.

김기성의장을 비롯한 의원일동은 지난 16일(토) 오후 3시 한중문화관주차장에서 개최한 한중문화관 개관식 행사에 참석, 축하를 통하여 만물이 소생하는 봄을 맞이하여 전국 지자체에서 최초로 『한중문화관』개관식을 갖게 된 것을 10만여 구민과 함께 진심으로 축하를 하며 『한중문화관』은 차이나타운과 신포권역 및 동인천권역 등과 상호 연계하는 관광벨트화에 일조함은 물론 중구를 국내·외에 널리 알리는 관광명소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또 오늘 한중문화관이 개관하기까지 애써 오신 김홍섭 구청장님을 비롯한 모든 관계자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린다고 전하였다.

전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 제98차 시도대표회의의 축하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김기성 의장은 지난 15일(금) 오전 11시 파라다이스호텔(8층) 토포즈홀에서 개최한 전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 회의에 참석, 환영사를 통하여 “현 지방자치제도가 이제 정착단계에 접어들어 지방분권제도의 결실을 맺게 된 것은 이 자리를 함께 하신 각 시·도대표 회장님들의 노력의 결과라 생각한다”면서 “앞으로 참여 정부의 핵심과제인 지방분권과 정부혁신정책을 통하여 급변하는 자치 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법적, 제도적 개선을 통하여 지방자치를 정착시키는데 노력해 나가자”고 강조했다.

지방의회 출범15년 성과와 과제에 관한 토론회 개최 참석



김기성의장을 비롯한 의원들은 지난 15일(금) 오후 2시 중구의회(3층) 본 회의장에서 개최한 지방의회 출범15년 성과와 과제에 관한 토론회에 전국 시·군자치구의회 시·도대표 회장 16명 및 수도권 지역의원 등 총200여명과 함께 참석한 가운데 지방의회 출범15년 성과와 과제에 관한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 이재창전국회의회의장협의회장의 개회사 및 박승숙인천광역시의회의장의 축사와 박재영정부혁신 지방분권위원회 지방분권국장의 기조연설에 이어 지역민주주의 발전, 지방행정의 효율성 제고, 지방의회의 제도적 문제점, 행태의 문제점 등의 주제를 가지고 관계자들이 열띤 토론을 가졌다.

(자료제공 : 중구의회 박종운)

❖ 교통안전상식 「정지선 · 안전띠」집중단속

－ 정지선엔 멈추고, 안전띠는 조이고 －

경찰청은 안전이 최우선 되는 교통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교통안전 의식에 획기적 전환점을 이룬 정지선 지키기와 안전띠 착용 운동에 대한 국민적 관심과 참여를 다시 한번 촉구하며, 3월 2일부터 5월 31일까지 3개월 간 집중단속과 홍보활동을 펼치기로 했다.

■ 중점단속 대상

- 신호위반 : 도로교통법 제5조(범칙금 6만 원, 벌점 15점)
- 교차로 통행방법 위반 : 도로교통법 제22조제3항(범칙금 4만 원)
- 보행자 횡단방해 : 도로교통법 제24조제1항(범칙금 6만 원, 벌점10점)
- 일시정지 의무위반 : 도로교통법 제27의2(범칙금 3만 원)
- 안전띠 미착용 : 도로교통법 제48조의2제1항(제62조제1항)(범칙금 3만 원)

■ 단속방법

- 정지선은 택시 · 버스 · 화물 등 사업용 자동차와 이륜차에 집중
- 버스 · 택시 등에 대해서도 엄정한 단속 실시
- 안전띠는 경찰관선 앞에서부터 단속을 실시하고, 공공기관 · 언론기관 · 대기업 체 등의 참여를 높이기 위해 주1회 이상 대규모 기관 정문에 진출하여 출 · 퇴근 시간대에 단속을 실시(단속 전 해당기관에 통보)
- 매주 지방청 단위의 일제단속 실시하고, 고속도로 진입차량에 대해서는 톨게이트 진 · 출 입구에 단속 실시

■ 문의전화 : 도로교통안전관리공단 인천지부(☎830-6162)

❖ 인천사이버시티센터 무료 DVD영화상영 일정

월	일 시	제 목	등 급	장 르	상영시간	비 고
4	30 (토)	이프온리	15세이상	멜로	96분	금요일 17:00 토요일 15:00
	6 (금)	신석기블루스	15세이상	코미디	110분	
	13 (금)	발레교습소	15세이상	드라마	120분	
	14 (토)	월드오브투모로우	전체	SF	169분	
5	20 (금)	역도산	12세이상	드라마	139분	(인어공주 14:00, 프린세스다이어리 16:30)
	21 (토)	인어공주	전체	에니메이션	115분	
	21 (토)	프린세스다이어리2	전체	코미디	113분	
	27 (금)	내사랑토람이	전체	드라마	107분	
	28 (토)	B형 남자친구	12세이상	코미디	96분	

※문의 : 인천사이버시티센터(☎440-1501~2)
http://cybercitycenter.incheon.go.kr

■ 관람안내

- 상영장소 : 인천사이버시티센터(한국씨티은행 2층)
인천지하철 종합문화예술회관역 1, 2번 출구
- 신청방법 : 전화 또는 E-mail 신청(성명, 연령, 연락처, 동반인원)
- 관람요령 : 상영시간에 맞춰 인천사이버시티센터로 방문(음식물 반입금지)
- 관람인원 : 30명 내외

■ 문의전화 : ☎440-1501~2 / E-mail : iccc@incheon.go.kr

❖ 2005년 1월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열람 및 의견제출 접수

- 기 간 : 2005년 4월 21일 ~ 2005년 5월 10일
- 제출자 :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
- 제출처 : 구 민원지적과, 각 동사무소민원실, 출장소
- 문 의 : 민원지적과 토지관리팀(☎760-7301~4)

❖ 민원부조리 및 주민불편신고센터 운영

- 우리구청에서 처리한 민원신청과 관련하여 공무원의 법령위반 또는 부당 요구 등 아래와 같이 불편을 겪었을 경우
 - 불필요한 첨부서류 요구행위
 - 금품 및 향응 요구행위
 - 기업부담 부당한 요구행위
 - 지연처리 및 부당 반려행위
 - 기타 공무원 비위 관련 사항
- 민원부조리 및 주민불편 신고방법
 - 직접방문 : 중구청 기획감사실 법무감사팀
 - 인터넷이용 : 중구 홈페이지 접속후 “공직자부조리신고센터”에 신고내용 입력
※신고사항에 대하여 사실조사후 결과를 신고자에게 통보하여 드리며 신고자의 비밀을 보장합니다.
- 문의전화 : ☎760-7080~4, Fax 760-7059

❖ 내집주차장갖기사업 안내

자가주차장확보 촉진 및 이면도로내 원활한 교통소통 등 쾌적한 주차환경을 조성코자 기존 담장이나 이웃 간 경계담장을 철거한후 부설주차장을 설치하는 자에게 설치비의 일정액을 보조합니다.

■ 보조대상

- 주차시설설치의무가 없는 주민이 주택내 또는 인접지역에 주차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
- 기타 주상복합건물내에서 가게 및 창고등을 폐쇄하고 주차시설로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 당해 주택 주소지에 등록된 차량대수 범위내에서 신규 또는 추가로 주차장을 설치할 경우

■ 보조금 : 최고120 ~ 320만원(총설치비용의 90%범위내)

구분	구분		대문철거	경계담장
	직각주차	평행주차		
보조범위	총설치비용의 90%범위내	총설치비용의 90%범위내	총설치비용의 90%범위내	총설치비용의 90%범위내
	최고 1,200천원까지	최고 1,800천원까지	최고 2,300천원까지	최고 3,200천원까지

■ 문의전화 : 중구 교통행정과(☎760-7557)

❖ 위조지폐 식별요령

■ 진자화폐와 위조화폐의 특징

위 · 변조 방지요소	진짜 화폐	위조 화폐	비 고
숨은그림	초상화가 선명하게 숨어있음	숨은그림이 다소 크거나 희미함 또는 숨은그림 없음	최근 많이 발견되는 5,000원권 위조지폐의 기번호
앞 · 뒷판 맞춤	우측초상화 상단에 둥그렇게 동물 문양이 있는바 뒷면의 문양과 일치(눈, 코를 바늘로 찍어 확인)	컬러복사기로 복사하여 대부분 일치하지 않음	
블록인쇄	은행권의 앞면 및 뒷면의 글자, 점자, 금액숫자 등이 손으로 만져보면 도드라진 부분을 느낄 수 있음	컬러복사기로 복사하여 느낄 수 없음	다마4772466다 마다2772466마 마마7772466다
지질의 촉감	특수종이(섬유)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만질 때와 튕겨볼 때 촉감과 바스락거리는 소리로 구별이 가능	일반종이로 복사하여 얇고 밋밋하며 인쇄가 물에 번짐	다자1772466다 (이상 은선 없음)
형광잉크 삽입	자외선감식기에 투사해보면 형광도안 및 불규칙적인 형광물질 확인 가능	형광물질 없음	0968789나사가 (은선을 떼어 넣음)
은색선	중앙부분에 은색선이 있음 (2002년 이전 발행 5,000원권과 1,000원권은 없음)	은색선부분이 겹게 나타나거나 은빛물감 덧칠 또는 은색선을 오려붙임	

■ 문의전화 : 한국은행 인천본부 화폐관리팀(☎880-0084, Fax 880-0110)

❖ 개인소지 민유통기 일제점검

- 점검일시 : 2005. 3. 14 ~ 5. 13(2개월간)
- 점검장소 : 주소지 관할 경찰서 생활안전과 생활질서계
- 점검 대상 : 공기총(5.5mm단탄), 마취총, 전자충격기, 석궁
- 점검내용
 - 총기 개 · 변조 여부
 - 실물과 소지허가증 대조 확인
 - 허가사항 변경내용 확인
- 지참물 : 총기 등 점검대상물, 소지허가증, 신분증
- 문의전화 :중부경찰서 생활안전과(☎764-0182)

❖ 법률구조 상담안내

- 대상 : 가진 것 없고 법을 알지 못하는 자
- 내용 : 서신상담, PC상담, 전화상담, 면접상담
- 혜택 : 1차상담을 통하여 필요한 경우 주1회 변호사상담 및 법률구조
- 상담시간 : 평일 오전10시부터 오후4시까지 접수가능(전화 및 면접상담)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에는 상담이 없음
 - 홈페이지 : http://www.law4u.or.kr (Email : law4u@law4u.or.kr)
 - 상담료 : 무료
- 문의 : 법률구조법인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인천지부(☎875-1361~2)
남구 학익2동 244-13,14 대현빌딩501호(인천법원검찰청앞)

작은 관심이 안전한 가정과 사회를 만듭니다

- 귀중품 사진을 찍어두면 쉽게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 경찰에서 범인을 검거하고 피해품을 발견하여도 돌려드리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 귀중품을 사진촬영해 보관하면 도난사건 등 피해발생시 쉽게 돌려 받을 수 있습니다.
 - 가까운 경찰관서에 귀중품 사진등록을 해두면 신속하게 수사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 범죄가 의심되는 차량은 112로 신고합시다
 - 최근 도난차량을 이용한 범죄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 주변에서 의심스러운 차량이 발견될 때 112로 신고해 주시면 즉시 출동하겠습니다.
 - 여러분의 신고가 주요사건 검거 단서가 될 경우 최고 5,000만원의 신고보상금을 지급합니다.
- 출입문 우유투입구는 폐쇄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 최근 출입문 우유투입구를 이용한 절도와 심지어 방화사건까지 일어나고 있습니다.
 - 우유투입구는 즉시 폐쇄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 출입문을 열고 닫기 전 주위를 살펴보고 잠그는 것을 생활화합시다.
- 문의전화 : 인천중부경찰서 강력팀(☎761-6691), 폭력팀(☎766-9337)
인천중부경찰서 www.icjb.police.go.kr

농사체험을 원하시는 도시민을 모십니다

- 우리 중구에서는 도시민 및 학생들에게 자연학습과 영농체험의 기회를 드리고자, 농업인들이 직접 경작하는 방식 그대로 농사를 체험하는 계절별 영농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 논과 밭에 콩, 고구마, 감자 등을 심고, 밭고랑에서 땀흘리며 풀도 매어 보고, 가을철에는 포도, 배, 고구마 등을 수확하는 기쁨을 맛볼수 있는 농사체험장을 준비하였습니다.
 - 도시민들에게는 자연속에서 농사 체험을 통하여 농업·농촌을 이해하고 농업의 소중함을 느낄 수 있는 좋은기회라 생각하며 도시민 여러분들을 초대하오니 농사 체험을 원하시는 단체·직장·학교·유치원 등에서는 중구청 산업경제과(032-760-737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농사체험 프로그램

시 간	내 용	비 고
09:50~10:00	농사체험장 도착 및 체험내용 설명	인솔자, 농가
01:00~12:00	농사체험	농가, 인솔자
12:00~14:00	점심식사 및 휴식(자유시간)	인솔자
14:00~16:00	농사체험 또는 교육관 등 견학	농가, 인솔자
16:00~17:00	체험장 정리 및 농산물 구매 등	농가, 인솔자
17:00~	출발 집으로...	인솔자

※농사체험은 무료이며 농가 및 체험단체 실정에 따라 오전과 오후 내용을 달리하여 실시

예) • 오 전 : 모내기, 풀메기, 벼베기, 배숙기, 배 봉지싸기 등

• 오 후 : 고추심기, 감자케기, 포도숙기, 고구마케기, 견학 등
- 농사체험추진계획

도시민 농사체험

→ (신청)
← (일정 및 준비물통보)

중구청 산업경제과 (☎760-7376~9)

→ (농가통보)
← (일정 및 준비물통보)

도시민 농사체험
- 문의전화 : 중구 산업경제과(☎760-7376)

무단방치등 불법자동차 일제정리계획

- 무단방치등 불법자동차 주민신고 협조
 - 신고대상 : 무단방치 자동차(자동차관리법 제26조 제1항 위반)
 - 노상에 고정시켜 운행 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자동차
 - 도로에 계속하여 방치하는 자동차
 - 도로, 주택가, 공터, 폐차장 등에 계속 방치된 자동차
 - 정당한 사유없이 타인의 토지에 방치된 자동차
 - ※무단방치행위 범칙금액
- | 범칙행위 | 해당법조문 | 범칙금액 | | |
|----------------|--------------------------|--------|----------------------|-------|
| | | 승용 자동차 | 승합·화물·특수자동차
경형·소형 | 중형·대형 |
| 자진처리명령에 응한 경우 | 자동차관리법 제26조제1항 및 제81조제1호 | 20만원 | 20만원 | 20만원 |
| 자진처리명령에 불응한 경우 | | 100만원 | 100만원 | 100만원 |
- 문의전화 : 중구 교통행정과(☎760-7579)

『부정수도』신고 및 보상금제도

- 부정수도 유형
 - 승인 받지 아니한 급수장치로 수돗물을 몰래 사용하는 행위
 - 철거한 급수장치에 호스를 연결하여 수돗물을 사용하는 행위
 - 건축공사장에서 이웃 수도전에 연결하여 사용하는 행위
 - 시설소화전을 무단 사용하는 행위
- 신고처리절차

전화·구술 인터넷신고

→

민원 접수

→

신고민원 현장실사

→

보상금 무통장 입금
- 관할수도사업소 신고센터
 - 중부수도 : 870-9493 • 동부수도 : 870-9503 • 남부수도 : 870-9521
 - 연수수도 : 870-9603 • 남동수도 : 870-9545 • 부평수도 : 870-9563
 - 계양수도 : 870-9573 • 서부수도 : 870-9583 • 강화수도 : 870-9591
- 신고방법
 - 인터넷 : 홈페이지(<http://waterworksh.incheon.kr>) → 부정수도 신고 및 보상금제도
 - 전 화 : 상수도사업본부 요금과(☎870-9246)

음식물쓰레기는 100% 재활용이 가능한 자원입니다

- 음식물쓰레기를 분리하여 배출하면 사료 또는 퇴비로 재활용되어 매립에 따른 토양오염을 방지하고 환경을 보존합니다.
- ※음식물쓰레기란 동물도 먹을 수 있는 것이어야 하며 날카롭고 딱딱해서 가축에게 해를 줄 수 있는 것은 제외합니다.
- 음식물 쓰레기가 아닌 것
 - 과일류 : 호두, 밤, 땅콩, 파인애플껍질, 복숭아씨, 감의 씨
 - 육 류 : 소, 돼지, 닭의 털과 뼈
 - 어패류 : 조개, 소라, 멍게등 패류껍데기, 게, 가재의 껍데기
 - 찌꺼기 : 각종 차류(녹차등)와 한약재의 찌꺼기(종이, 형겔등으로 포장된 1회용 녹차)
- 배출방법 및 배출시간
 - 음식물쓰레기는 수분을 최대한 빼서 음식물 전용봉투(노란색)에 담아 통·반별로 제작·배치한 소형중간수거용기에 넣어 주시기 바랍니다.
 - 신포동, 동인천동, 북성동, 송월동 : 일요일, 화요일, 목요일 저녁8시 이후
 - 연안동, 신흥동, 도원동, 율목동 : 월요일, 수요일, 금요일 저녁8시 이후
- 소형중간용기 관리방법
 - 단독주택 : 각통·반별로 지정된 관리자를 중심으로 수시로 세척하여 깨끗하고, 청결하게 유지
 - 소형음식점 : 소형음식점 주인이 수시로 세척하여 깨끗하고, 청결하게 유지
 - ※소형중간수거용기는 구민의 재산입니다. 깨끗하게 사용합시다.
 - 〈음식물 전용봉투를 사용하지 않은 음식물쓰레기는 수거하지 않습니다.〉
- 문의전화 : 중구환경관리과(☎760-7421)

환경도 지키고 신고포상금도 받으세요

- 신고대상
 - 오·폐수 무단방류, 무허가 배출시설 설치·운영, 배출시설 비정상가동, 악취발생물질 소각, 폐기물불법매립, 국립공원내 자연훼손 행위 등 환경관련법에 의한 환경오염 또는 환경훼손행위 등
- 신고방법 및 요령
 - 신고방법
 - 일반전화 : 국번없이 128 - 휴대폰 : 지역번호 128
 - 시·군·구청 민원실, 국립공원관리사무소, 한강유역환경청
 - 기 타 : 인터넷, 엽서, 편지, 직접방문 등
 - 신고요령 : 누가, 언제, 어디서, 어떻게 환경훼손행위를 했는지 가능한 자세히 신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차량으로 폐기물을 불법 매립하거나 무단 투기하는 경우에는 차량 번호도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오염 행위별 신고포상금 지급 기준
 - 환경훼손행위를 신고하시는 분에게는 해당기관에서 위반사항을 처벌한 내용에 따라 포상심사하여 3만원에서 최고 100만원까지 포상금 지급
- 환경훼손 행위를 발견하시면 꼭 신고해 주십시오.
 - 신고포상금으로 보답해 드리겠습니다.
- 문의전화 : 한강유역환경청(☎031-7902-801) <http://hg.me.go.kr>



우리 작은 소식들은



새봄맞이대청소

지난달 23일 황운아파트 앞에서 구민 5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새봄맞이 대청소를 실시하였다.



수산조정위원회

14일 구청회의실에서 황흥구 부구청장을 비롯한 위원 15명이 참여한 가운데 수산조정위원회가 개최됐다.



제60회 식목행사

2일 제60회 식목일을 맞아 영종운서동 배후지원단지에서 공무원, 유관단체, 주민 등 3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해송 등 3종 1,008본의 나무심기 행사를 가졌다.



중국 투자환경설명회

지난달 30일 파라다이스호텔에서는 관내 기업인들이 참석한 가운데 중국 위해 및 환취구 투자환경설명회가 열렸다.



화단가꾸기

18일부터 송월동에서는 각 자생단체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새봄맞이환경정비를 위한 화단가꾸기사업을 실시했다.



일일찻집 운영

12일 바르게살기운동중구협의회(회장:박봉주)는 일일찻집을 운영, 수익금을 불우이웃돕기 성금으로 전달했다.

인천광역시여성복지관
개관18주년 기념 작품전시회 개최

인천광역시여성복지관에서는 개관 18주년을 기념하여 갖고 닦은 수강생들의 기량을 선보이는 작품전을 다음과 같이 개최하오니 시민들의 많은 관람바랍니다.

■행사기간 : 2005. 5. 9(월) ~ 5. 11(수)

※테이프커팅 : 5. 9(월) 14:00

- 장 소 : 여성복지관 전관
- 관람대상 : 초청인사, 수강생 및 수료생, 일반시민등

■주요행사

- 작품전시 : 직업전문교육 및 문화아카데미 35개과목의 작품 1,000여점
- 관 · 계례(성년식)
 - 일 시 : 5. 9(월) 14:30
 - 내 용 : 만15세 이상 만20세 미만의 남녀를 대상으로 전통방식으로 성년식(관 · 계례) 재현
- 여성교양대강좌
 - 일 시 : 5. 10(화) 10:00
 - 강 사 : 한치호(중앙인터빌 금융사업부장)
 - 내 용 : 알뜰살뜰 생활경제와 재테크
- 여성복지관 가족장기자랑 대회
 - 일 시 : 5. 11(수) 14:00~16:00
- 자원봉사마당 개설 : 5. 9(월) ~ 5. 10(화)
 - 미용(커트), 수지침, 족석증명사진촬영, 가훈대필

■문의처 : ☎ 425-1362~72, 435-1446
<http://women-center.incheon.go.kr>

인천남구여성인력개발센터 프로그램

■사회적일자리 여성취업지원사업 교육생 모집

대 상	취업을 희망하는 실직여성
과 목	전문간병인 (2개월 과정)
훈련기간	2005. 4. 25 ~ 2005. 6. 29
시 간	월, 수, 금 14:00 ~ 17:00(1일 3시간)
교 육 비	5만원 (본인부담금 20%)
특 전	재료비, 교재비, 교육비 80% 여성부지원 수료후 100% 취업알선
접수기간	4월 11일 ~ 4월 24일
구비서류	주민등록등본, 구직등록필증, 사진 2매, 이력서 1통

■정부지원 100%무료훈련생 모집(단기적응훈련)

대 상	취업을 희망하는 주부 50세 이상의 준 · 고령자
과 목	제빵보조원 (4주 과정)
훈 련 일	2005. 6. 7 ~ 2005. 7. 4
시 간	월 ~ 금 14:00 ~ 18:00 (1일 4시간)
특 전	교육비, 재료비 전액 무료 / 취업알선
접수기간	5월 2일 ~ 5월 20일
구비서류	주민등록등본, 사진 2매

- 상담직통전화 : ☎ 888-6063
- 문의전화 : ☎ 881-6060~2 www.namgucenter.or.kr

무료 기형아, 풍진검사 안내



■대상 : 주민등록상 중구 관내 여성중

- 기형아 검사 : 혈액검사와 초음파검사(임산16~18주)
- 풍진 검사 : 항원, 항체검사
(가임부여성, 임신부12주이내)

■사업기간 : 2005년 3월 8일 ~ 12월 (선착순 각70명)

■모집방법 : 전화접수

- 매주 화요일 오후 1시 30분 보건소 출발 → 위탁기관
검사후 귀가 → 3주이내 결과 통보

■준비물 : 주민등록증 지참

■검사위탁기관 : 대한가족보건복지협회인천지회 가족보건
의원(☎422-0078)

■문의처 : 중구보건소 모자보건실(☎ 760-7663)

무료 수두 · Td (디프테리아 · 파상풍)
예방접종 안내

■대 상 : 주민등록상 중구 관내 거주 사실이 확인되는 영
아 및 아동

- 수두 예방접종 : 만 1세 영아
- Td 예방접종 : 만 11세 ~ 만 12세 아동(초등학교 6학
년)

■기 간 : 2005년 4월 1일 ~ 12월 연중 실시

■접종시간

- 수두 예방접종 : 월 ~ 금 오전 9시 ~ 11:30분
- Td 예방접종 : 월 ~ 금 오후 1시 ~ 3시

■준비물 : 주민등록등본 1통 지참

■문의처 : 중구보건소 예방접종실(☎ 760-7663)

방과후 아동지도 ‘용기종기 지역공부방’ 개소식



성미가엘종합사회복지관(관장 : 조민호)에
서는 노동부 경인고용안정센터의 지원아
래 2005년 사회적 일자리창출사업으로 ‘아
동지도사파견사업’을 2월부터 준비하여 중구,
동구, 서구, 남구 등에서 실시하였습니다. 아동지도사
파견사업은 인천관내 공부방 사업이 필요한 지역에 공
부방을 개설하여 방과후에 방치되어 있는 아동들을 대
상으로 실직여성 중 교사경력자와 사회복지사 및 아동
지도사 자격을 이수한 여성들을 선발 · 교육하여 아동
지도 및 인성교육을 담당하게 됩니다.
현재는 아동들의 방과후 보호가 필요하나 예산과 공간
부족으로 기존 학교에서도 1학년 이상은 수용하지 못
하고 있는 실정이며 방과후교실에 참여하지 못하는 아
동들이 방치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역공부방 사업의 일환으로 중구에서는 성미가엘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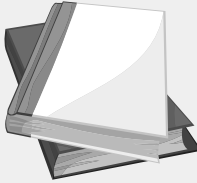
합사회복지관과 신흥동사무소(동장 :
박성용)가 신흥동주민자치센터를 제공
하여 지역공부방이 개소했습니다. 동
구에 청소년자활지원관 2층에 지역공
부방에도 설치되고 주안4동사무소(동
장 : 김춘태)의 도움으로 주안4동 새마
을 금고에서 무상으로 장소를 제공하
여 개설되었습니다.

새로 신설된 지역공부방은 부모들에게
는 사교육비 부담을 덜고 아동에게 필
요한 영역의 지도 및 학습지원이 될
것입니다. 계속적으로 지역아동보호를
위한 공부방 사업이 활성화 될 수 있
도록 인천시민들의 많은 관심이 요구
되어 집니다.

그 동안 방과후교실사업에 관심이 많았
던 기관과 단체들이 아동지도사의 인건비
지원이 없어 고심하던 중 이번 기회를 통해 성.
미가엘종합사회복지관과 노동부 경인고용안정센터의
지원으로 방과후교실을 운영하게 되어 지역주민들의
많은 호응을 얻고 있으며, 이 사업은 또한 민관의 협
력을 통한 사회문제에 참여하는 좋은 본보
기가 될 것입니다.

성미가엘종합사회복지관은 앞으로
도 지속적으로 방과후교실이 필요한
곳에 설치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
며, 노동부 경인고용안정센터의 지
원으로 이 사업을 확대 해나갈 것입니다.

(자료제공 : 성미가엘종합사회복지관)



벚꽃을 밟으며 (주민자치위원장을 마치며)

심영섭(북성동 주민자치위원장)

새삼 지나간 2년을
돌이켜 봅니다. 지난
2003년 2기 주민 자치위원장을 맡은
뒤 올해 4월까지, 정신없이 달려온 세
월이었습니다. 한 편으론 책임감이 컸
지만, 다른 한 편으론 커다란 짐이었던
게 사실입니다.

북성동 주민 대표를 맡은 그 날부터
저는 무엇을 어떻게 이끌어 갈 지 막
막했으나 부위원장, 간사, 4개 분과위
원장, 자치 위원, 고문님, 동장님과 동
사무소 직원 분들의 도움으로 황금같

은 시간을 보내왔습니다.

이제 위원장이란 직함을 후배에게
물려주어야 할 시기가 되다보니 그동
안 자치프로그램에 대해 좀 더 열과
성을 다하지 못한 점이 아쉬움으로 남
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모든 위원님들의 도움으
로 처음 시작할 때 그 마음으로 동네
화합을 향해 달려왔다고는 감히 자부
합니다. 물론 그 마음은 지금도 변함이
없습니다.

지난 2004년 우리동네 가꾸기 지원

협의회를 구성, 자원봉사자와 자생단
체, 기업이 다함께 참여해 후미진 지역
구석구석을 찾아다니며 동네 환경정
화운동을 벌이던 생각이 주마등처럼
스쳐갑니다. 그 일은 저로 하여금 지금
도 휴지 하나, 꾀초 하나라도 내 손으
로 치워야 한다는 사명감을 갖게 만들
었습니다.

자치센터 프로그램 이수자를 위한
아동과 주민을 대상으로 수료증 또는
기념품을 주고 다과회를 갖던 추억, 청
장님과 대화의 시간을 처음 가졌던 기
억은 아직도 선명합니다.

청장님과의 대화는 특히 예전에 없
던 4개 분과위원회를 신설해 사전 심
의토론회를 가진 뒤 달라진 주민자치

위원회의 위상을 보여준 계기가 되기
도 했습니다.

저의 인생론과 직결된 주민화합을
위한 북성동 단합대회는 이웃동네(송
월동) 내빈과 하나되는 자리였습니다.
구민 체육대회, 척사대회 등을 통해 자
생단체와 동사무소가 한마음으로 어
울린 것은 정말 가슴 뻥뚫힌 일이 아
닐 수 없었습니다.

이제 벚꽃 축제를 마지막으로 지난
2년의 시간을 마감하려 합니다. 다시
는 돌아오지 않을 나의 소중한 시간들.

이제 새롭게 임기를 시작하는 4기
위원회는 북성동 활성화와 발전의 주
춧돌이 되길 기원하며 벚꽃을 살포시
밟아봅니다. (자료제공 : 북성동 김용준)

5월 청소년의 달 맞이 청소년 동아리 축제

■ 기 간 : 2005. 5. 5~5. 31 (총 5회) 15:00~18:00
5월 5일 어린이날 특별이벤트 및 매주 토요일 행사

■ 장 소 : 자유공원, 월미도 문화의거리 순회 운영



■ 행사내용

일 시	장 소	프로그램 내용
2005.5.5(목) 15:00~18:00	자유공원	어린이날 특별 이벤트 - 초등학교 댄스경연 및 즉석 가족 장기자랑 운영 - 가족이 함께하는 레크레이션 운영 ※ 전문 레크MC 진행으로 관객 레크레이션 운영
2005.5.7(토) 15:00~18:00	월미도 문화의거리	청소년 문화축제 한마당 : 10개팀 - 발라드, 댄스, R&B, 팝송, 창작송, 트롯트 - 댄스, 힙합, 재즈댄스, 댄스스포츠, 치어 응원단 - 풍물, 그룹사운드, 중창, 수화 미술 등 공연 ※ 전문 레크MC 진행으로 관객 레크레이션 운영
2005.5.14(토) 15:00~18:00	월미도 문화의거리	청소년 문화축제 한마당 : 락(Rock)부문 - 락밴드, 인디밴드, 가요밴드, 창작곡 밴드 등 그룹사운드 10개팀 공연 ※ 전문 레크MC 진행으로 관객 레크레이션 운영
2005.5.21(토) 15:00~18:00	자유공원	청소년 문화축제 한마당 : 댄스(Dance)부문 - 힙합, 재즈댄스, 댄스스포츠, 치어 응원단 등 댄스 부문 10개팀 공연 - 전문 레크MC 진행으로 관객 레크레이션 운영
2005.5.28(토) 15:00~18:00	월미도 문화의거리	중구쟁! 시상식 - 수상팀 공연 10개팀 - 축하공연 : 대학응원단 - 중구청장 표창상 및 격려

※ 본 행사는 일정상 부득이한 경우 변경될 수도 있음.

지진 관련 시민행동요령



지진 발생시

■ 집안에 있을때

- 사용되고 있는 불을 끕니다.
- 테이블 밑으로 들어가 몸을 보호합니다.
- 비상출입문을 확보합니다.
- 정신적 공포로 인해 밖으로 뛰어나가는 것은 위험하니 침착하게 상황을 살피고 행동해야 합니다.



■ 집밖에 있을때

- 고층건물사이에 둘러싸여 있을 때에는 창문유리나 간판이 떨어질 것을 대비해 머리를 보호하여
- 가까운 공원이나 공터로 대피해야 합니다.
- 엘리베이터 안에 있을 때에는 신속히 가까운 층의 복도로 대피해야 합니다.
- 지하쇼핑몰은 대체로 안전하므로 당황하지 말고 직원의 지시에 따라 침착하게 행동해야 합니다.
- 대중교통을 이용시에는 강한 충격에 자신의 몸을 보호하기 위해 손잡이나 기둥을 잡고 운전자의 지시에 따라 침착하게 행동합니다.
- 극장에서는 가방 등을 이용해 머리를 보호하고 엎드려 있어야 합니다.
- 육교에서는 육교가 흔들리는 것에 대비해 기둥이나 벽을 잡고 엎드려 있어야 합니다.
- 운전중일 때에는 차를 멈추고 라디오 등을 켜고 방송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 해변가나 강하구에 있을 때에는 지진해일의 위험이 있으므로 높은지역으로 신속히 이동하여야 합니다.



지진 소진후

■ 화재예방 및 초기진압

- 모든 전열기를 끄고 가스 밸브를 잠가야 합니다.
- 화재가 발생하면 소리쳐서 이웃에게 알리고 초기진압을 시도해야 합니다.
- 초기진압에 실패하였다면 신속히 대피하여야 합니다.

■ 지진이 멈추었을 때

- 부상자를 확인하고 가옥의 파손정도를 확인합니다.
- 지진이 멈추었다고 해도 여진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해 준비하고 있어야 합니다.

■ 피난요령

- 공공방송에서 발표하는 정확한 정보만을 얻어야 하며, 유언비어에 속지 말아야 합니다.
- 자동차를 이용하지 않고 도보로 대피해야 합니다.
- 혼자 대피하는 것은 위험하니 이웃과 같이 대피하여야 합니다.
- 모든 사람의 협력하여 구조활동에 참여하고 협동하여야 하여야 합니다.

■ 환자치료

- 압박붕대 등을 사용하여 출혈환자의 지혈을 시킵니다.
- 화상을 입었을 경우에는 찬물이 가장 효과적이며, 화상으로 인해 생긴 물집을 터트려서는 안됩니다.
- 심한 부상을 입었을 때에는 즉시 병원으로 데려가 의사에게 보여야 합니다.

(자료제공 : 재난안전관리과)

인천중구소식지 애독자퀴즈당첨자 발표

“인천중구소식” 애독자퀴즈 당첨자 추첨이 지난 4월 18일 문화공보실에서 엄정 실시되었으며 애독자 66명이 참여, 오답자는 12명이었고 54명의 정답자 중 20명이 당첨되었습니다.



애독자퀴즈 당첨자 명단

김현진(송학3가 2-67)	차유리(향동7가 27-107)	황성희(신흥2가 1-87)
문금자(신흥1가 18-13)	김지연(신흥1가 6-29)	최중길(도원 28 9/3)
박 철(도원 19-8 3/5)	송옥경(울목동 150)	최지희(도원 28 9/3)
이경은(전동 18-17)	김사라(내동 83-6)	윤은옥(인현동 18-9)
노은경(북성2가 5-1)	최은애(북성2가 5-1)	최윤선(송월1가 11-86)
정혜순(송월1가 4-242)	장금자(송월1가 4-198)	신순옥(송월1가 11-86)
박춘미(운서동 2747-5)	이용근(운서동 2851)	

작은 사랑이 따뜻한 사회를 만듭니다

중구의 자원봉사자로 등록을 해주세요!



자원봉사는 타인을 돕는 것이 아니라 타인과 함께하는 활동입니다.
더불어 살아가는 만남과 나눔의 장이 여러분을 기다립니다.
어떠한 분야도 좋습니다.

자원봉사는 국번없이 『1365』를 누르세요

인천광역시 중구 자원봉사센터

인천광역시 중구 중구청 길 100번지 (중구청내)

문의전화 : ☎ (032) 777-1365, 770-7206/7, FAX 760-7209